

정보 불충분성, 정보 수집 능력, 시간적 거리가 지진에 관한 정보 추구 및 회피에 미치는 영향*

이혜규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조교수**

백혜진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과 해석수준 이론을 적용하여 정보 불충분성, 정보 수집 능력 및 시간적 거리가 지진에 관한 정보 추구 및 정보 회피에 미치는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효과가 지진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방법

전국에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성인 538명(개인 혹은 가족의 지진 경험자 309명 포함)을 대상으로 얻어진 온라인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결과

첫째,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수집 능력은 정보 추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정보 회피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둘째, 정보 불충분성은 지진 비경험 집단에서는 정보 추구에 긍정적 영향을, 정보 회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지진 경험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셋째, 시간적 거리는 정보 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정보 회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정보 수집 능력이 정보 추구 및 정보 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진 위험의 맥락에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을 적용하고 해석수준 이론의 시간적 거리 개념을 이론적으로 통합했다는 이론적 함의와 지진 경험 여부 등 타겟에 따른 지진 위험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전략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KEYWORDS 시간적 거리,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 정보 추구, 정보 회피, 지진

* 이 논문은 2017년도 한동대학교 교내연구지원(과제번호 20170053)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First Author: hglee@handong.edu

*** Corresponding Author: 55 Hanyangdaehak-ro, Sangnok-gu, Ansan, Gyeonggi-do, South Korea, 426-791, 82-31-400-5441, hjpaek@hanyang.ac.kr

서론

지진은 위험 노출 가능성은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심각성이 매우 큰 자연재해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매우 막대한 위험의 하나이다(Kim, 2017). 그동안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에 속한다고 여겨져, 일반 시민들은 물론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연구자들에게도 지진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016년 9월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2017년 11월에는 포항에서 5.4의 지진이 발생해 한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일으켰다. 실제 기상청은 2019년에도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Kim, 2019).

지진은 다른 자연재해와는 달리 발생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위험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지진 발생 시의 대비 행동 등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준비하면, 지진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Tekeli-Yesil, Dedeoglu, Braun-Fahrlaender, & Tanner, 2010). 경주 지진 발생 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진 방재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지진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으며, 지진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놓았다(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2017).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정보를 탐색하고 습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본 연구는 지진에 대한 정보 탐색과 관계된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지진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전략

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을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의 맥락에 적용해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습득 능력이 지진에 대한 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 정보 불충분성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식수준에 비해 개인이 보유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개념으로, 정보의 불충분을 지각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추구한다. 반대로 정보가 충분하다고 지각하면 정보를 회피한다(Kahlor, Dunwoody, Griffin, & Neuwirth, 2006). 또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인지하면 정보를 추구하지 않는다.

한편, 지진과 같이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사람들에게 먼 미래에나 일어날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다(Trope & Liberman, 2010). 따라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가 불충분해도, 지금 당장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보를 탐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에 시간적 거리의 개념을 도입해 정보 불충분성, 정보 습득 능력과 시간적 거리가 지진에 대한 정보 탐색에 미치는 주효과 및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지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어 위에서 열거한 변수들의 관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은 위험의 경험은 성별, 연령 등

과 함께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위험의 경험과 정보 탐색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위험 정보 탐색처리 모형의 연구들은 대부분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집단 간 비교 연구는 거의 없다(Rose, Toman, & Olsen, 2017). 지진 경험 유무에 따라 정보 불충분성, 정보 수집 능력 및 시간적 거리가 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는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주 타깃인 지진 위험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은 사람들이 위험을 인지했을 때, 위험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그리핀 등(Griffin et al., 1999)이 고안하였다. 이 모형은 정보 탐색 및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체계적-휴리스틱 모형(Heuristic-Systematic Model: HSM)과 사람의 행동을 태도,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감으로 설명하는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91)을 통합한 것이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에서 정보 탐색은 정보 추구하고 정보 회피로, 정보 처리는 체계적 처리와 주변적 처리로 구분된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의 연구들은

대부분 정보 탐색과 정보 처리 가운데 하나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경향이 있는데(e.g., Huh & Kim, 2015; ter Huurne, Griffin, & Gutteling, 2009), 본 연구는 정보 탐색, 즉 정보 추구하고 정보 회피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에서 정보 추구란 미디어를 통해 습관적 혹은 일상적으로 정보를 얻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보를 추구하고 획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정보 회피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피하거나 집중하지 않으려는 노력 혹은 행위이다. 그러나 정보 추구하고 정보 회피는 단순히 반대되는 행동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정보를 회피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보를 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Kahlor et al.,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 연구들의 다수는 정보 추구만을 다룰 뿐 정보 회피에 대해서는 간과했으며(e.g., Yang et al., 2011), 일부 연구(e.g., Seo, 2016)는 정보 추구하고 회피를 동일한 차원의 반대 행동으로 다루어 왔다. 본 연구는 지진 위험의 맥락에서 정보 추구하고 정보 회피를 종속 변인으로 하며, 이들 변인에 영향을 주는 예측 변인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은 정보 추구하고 정보 회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정보 불충분성을 꼽는다. 정보 불충분성은 특정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보 임계치와 개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차이로 정의된다. 사람들은 특정 위험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즉 필요한 정보 임계치와 보유 지식의 차이가 클수록 정보를 추구는 반면,

정보가 충분하다고 지각할수록 정보를 회피한다 (Kahlor et al., 2006).

한편, 정보 불충분성은 정보 추구(혹은 회피)에 영향을 미칠 때 개인의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원의 신뢰도에 의해 조절된다. 계획된 행동 이론의 '지각된 행동 통제력'과 유사한 개념인 '정보 수집 능력'은 위협 정보를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Ajzen, 1991; Yang & Kahlor, 2012). 한편 위협정보 탐색처리 모형이 제안되었을 당시 정보원의 신뢰도는 정보를 획득하는 미디어 채널의 유용성 및 신뢰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탐색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가정되었다(Griffin et al., 1999). 그러나 이 개념은 조작적 정의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다양한 미디어 채널이 존재하고, 이 가운데 개인들이 자유롭게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다수의 연구들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다(Yang, Rickard, Harrison, & Seo, 2014b).

또한 정보 불충분성은 위협을 인식할 때 야기되는 감정적 반응 및 주관적 규범 인식(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변인이 위협 관련 정보를 개인 자신이 얼마나 알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감정적 반응은 위협의 성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perceived hazard characteristics)에 영향을 받는 데, 인지된 위협의 성격은 위협에 대한 판단(risk judgment), 기관에 대한 신뢰 및 개인적 효능감으로 측정된다. 또한 인지된 위협의 성격은 관련 위협의 경험 여부나 성별 같은 인구학적 속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은 1999년에 주창된 이후, 기후변화(Ho, Detenber, Rosenthal, & Lee, 2014; Yang et al., 2014b), 환경 문제(Kahlor, Dunwoody, Griffin, Neuwirth, & Giese, 2003), 자연재해(Griffin et al., 2008)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어 연구되었으며, 국내에서도 메르스(Seo, 2016), 불산 유출과 태풍(Huh & Kim, 2015), 미세먼지(Kim, Lee, Lee, & Kim, 2017) 등의 위험 주제 맥락에서 연구되었다. 정보 추구를 종속 변수로 두고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을 적용한 연구 13편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형의 변수들이 모두 포함될 경우 정보 추구에 대한 설명력은 평균 51%였다(Yang, Aloe, & Feeley, 2014a).

한편 메타 분석 결과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여도가 높은 위험 주제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들은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은 개인과 관련된 위험 행동, 예를 들면 음식 소비나 건강 위험 등에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Yang et al., 2014a). 국내에서 지진은 홍수나 태풍 등의 재해와 비교할 때 매우 드문 재해이며, 대부분의 사람에게 지진은 경험해 보지 않은 낯선 재해이다. 그러나 지진 경험자에게 있어서, 지진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이며 관여도가 높은 위험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을 지진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자 한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은 국가 혹은 문화 집단 간 비교를 한 경우는 있으나(e.g., Yang, Kahlor, & Li, 2013),

대부분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동일 집단 내에서 검증되었다. 지진 경험 유무에 따라 정보 추구와 정보 회피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는 위협정보 탐색처리 모형의 유효성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위협 경험 유무에 따라 차별화된 위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시간적 거리

지진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자연재해라는 점에서, 사람에게 따라서는 지진이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 여길 수 있으며, 지진 정보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해 정보를 추구하지 않거나 혹은 정보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협정보 탐색처리 모형에 '시간적 거리'의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정보 추구와 정보 회피 행동의 예측을 높일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시간적 거리는 동일한 사건이나 대상이라도 사람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거리에 따라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 Trope & Liberman, 2010)의 한 개념이다.

해석수준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네 가지 차원의 심리적 거리-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가상적(hypothetical) 거리를 갖는다. 시간적 거리는 어떤 사건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지 혹은 먼 미래에 발생할지에 대한 지각으로, 해석수준 이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개념이다(Trope & Liberman, 2010). 지리적 거리는 대상의 위치 혹은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얼마나 가깝다고 여겨지는지에 대한 지각이며, 사회적 거리는 어떤 대상이 자신과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유사한지를 다룬다. 한편, 가상적 거리는 실제 사건인지 혹은 가상의 사건인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사건의 결과가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한 개념이다(Trope & Liberman, 2010).

이들 네 가지 차원의 심리적 거리는 상호 연관성이 높아서, 특정 대상에 대해 한 차원의 거리가 멀면 다른 세 차원의 거리도 대체로 먼 것으로 인식된다(Griffioen, van Beek, Lindhout, & Handgraaf, 2016).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의 시간적 거리가 멀다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적 거리도 멀다고 지각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가 먼 대상은 공간적으로 먼 곳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와 공간적 거리의 연관성이 높다(McDonald, Chai, & Newell, 2015).

해석수준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지각하는 거리감이 멀수록 사건이나 대상을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목적 위주의 해석, 즉 상위 수준의 해석을 한다. 반면, 거리감이 가까울 때는 사건이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인 실행이나 사용을 할 수 있는 세부 정보에 치중하는 하위 수준의 해석을 한다(Trope & Liberman, 2010). 예를 들어, 사람들은 먼 미래에 수행해야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수행해야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Fiedler, Semin, Finkenauer, & Berkel, 1995). 또한 심리적 거리가 멀수록 '왜'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여행의 이유를 표상한다. 반면, 가까운 미래의 여행을 떠올

릴 경우 여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예, 일정 짜기) 등의 정보를 표상한다(Kim, Kim, & Boo, 2012).

심리적 거리감에 따른 해석의 차이는 사람들의 정보 처리 방식, 대상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의사 결정 과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Park, 2014). 예를 들어 휴대폰 사용에 따른 전자파 위험을 ‘매일’의 시간 단위로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적 거리를 가깝게 인식하도록 한 경우, ‘매년’의 시간 단위의 메시지로 시간적 거리를 멀게 인식하도록 한 경우에 비해 위험 인식이 더 높았다(Chandran & Menon, 2004). 또한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해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느낄수록 미세먼지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행동 의도 및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행동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Lee, Kim, & Moon, 2018). 강과 권(Kang & Kwon, 2018)은 암에 대해 시간적 거리를 멀게 느끼도록 조작한 메시지를 제시한 경우에 비해, 시간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도록 조작한 메시지를 제시했을 때 암 예방을 위한 행동 의도가 높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어떻게’와 관련한 메시지를 제공했을 때, 시간적 거리가 먼 경우에는 ‘왜’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했을 때 행동 의도가 높게 나타나, 시간적 거리와 해석수준 메시지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고했다.

해석수준 이론은 심리학, 마케팅 및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주목을 받은 것에 비해 위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편

이다. 해석수준 이론은 위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심리적 거리, 특히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개인의 행동이나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일관되게 보고해 왔다(e.g., Jones, Hine, & Marks, 2017; McDonald et al., 2015). 지진 맥락에서는 주로 지리적 거리를 다룬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해석수준 이론에서 다루는 ‘심리적 거리’보다는 지진 발생 혹은 위험 지역과의 실제 거리로서 지리적 거리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해석수준 이론을 적용하는 다른 분야의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직후 지리적 거리와 위험 인식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보고된다(Kim, 2017). 이 연구에서는 지리적 거리가 먼 경우 지진에 대한 위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화산, 지진 등의 자연재해의 경우 위험 지역에서의 거주 여부나 근접성이 위험 인식이나 예방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다(Siegrist & Gutscher, 2008; Tekeli-Yesil et al., 2010).

한편 해석수준 이론을 적용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들은 주로 심리적 거리에 따라 의사 결정의 결과나 설득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었지만, 정보 추구나 정보 회피와 같은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Lee, 2018). 본 연구는 지진 위험의 맥락에서, 시간적 거리가 정보 추구나 회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보 탐색은 위험의 예방 혹은 대처를 유발하는 선행 요인으로서 정보 추구 혹은 정보 회피로 대변되는 정보 탐색의 영향 요인을 알아보

는 것은 위험 예방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해석수준 이론의 네 가지 차원 가운데 시간적 거리에 초점을 둔다. 지진은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자연재해라는 점에서 가상적 거리(Hypotheticality) 역시 주목할 만한 변수일 수 있으나, 가상적 거리의 개념이 실제 존재하는 사건인지 혹은 가상의 사건인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발생 빈도는 낮아도 이미 실제 발생한 사건인 '지진'의 경우 가상적 거리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가까운 (혹은 먼) 시점에 지진이 다시 발생할지를 다루는 시간적 개념에 본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구가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정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보 임계치와 비교해 자신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보를 추구하고, 지식이 충분하면 정보를 회피한다(Griffin et al., 1999). 이에 근거해 <연구가설 1>을 제안한다. 또한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은 정보 수집 능력이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탐색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주장한다(Griffin et al., 1999). 그러나 정보 수집 능력은 정보 탐색에 대한 주효과도 있다고 보고되는데, 정보 수집 능력은 정보 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er Huurne et al., 2009). 이에 본 연구는 정보 탐색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의 주효과(연구가설 2) 및 정보 불충분성과의 상호작용 효과(연구가설 3)를 제안한다.

연구가설 1: 정보 불충분성은 정보 추구와 긍정적 관계가 있는 반면(1a), 정보 회피와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1b).

연구가설 2: 정보 수집 능력은 정보 추구와 긍정적 관계가 있는 반면(2a), 정보 회피와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2b).

연구가설 3: 정보 수집 능력은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추구 및 정보 회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보 수집 능력이 클수록 정보 불충분성이 정보 추구(3a) 및 정보 회피(3b)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해석수준 이론에 따르면 시간적 거리가 멀수록, 즉 어떤 사건이나 대상이 먼 미래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행동 의도가 낮다. 지진이 먼 미래에 발생한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정보 추구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정보를 일부러 회피한다고 볼 수는 없다(Kahlor et al., 2006). 그러나 시간적 거리와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 것(예: 정보 회피)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바,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시간적 거리는 정보 추구(연구문제 1a)와 정보 회피(연구문제 1b)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해석수준 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가 멀수록 추상적인 정보를 표상하고 행동의 바람직성과 목

적에 초점을 둔다. 반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구체적인 정보를 표상하고 행동 수행의 가능성과 ‘어떻게’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여긴다(Fiedler et al., 1995). 한편, 위협정보 탐색처리 모형의 정보 수집 능력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능력에 대한 시각으로 해석수준 이론의 ‘어떻게’의 정보와 관련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정보 수집 능력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기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2>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2: 시간적 거리는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 추구의 관계(연구문제 2a) 및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회피의 관계(연구문제 2b)를 조절하는가?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에 따르면, 정보 불충분성은 정보 추구를 유도하는 핵심적인 동기 요인으로, 사람들은 의사 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정보를 추구한다(Griffin et al., 2008; ter Huurne et al., 2009). 그러나 어떤 사건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 없다면,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지금 느끼더라도 정보를 당장 추구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보를 회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설의 근거가 될 이론 및 선행 연구가 부족한 바,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3: 시간적 거리는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추구의 관계(연구문제 3a) 및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회피의 관계(연구문제 3b)를 조절하는가?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의 초기 논문(Griffin et al., 1999)은 위협과 관련한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은 위협 인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보 탐색 및 정보 처리를 비롯하여 위협정보 탐색처리 모형에 포함된 다양한 매개 변수들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정보 탐색처리 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은 개인의 경험 유무에 따라 위협정보 탐색처리 모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김 등(Kim et al., 2017)은 국내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증상 경험 유무에 따라 위협정보 탐색처리 모형을 적용한 결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 증상을 별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 수집 능력이 높을수록 정보를 회피하는 반면, 건강 증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에서는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 회피 간의 관계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개인의 경험은 지진과 같이 발생 빈도가 흔하지 않은 희귀한 자연재해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를 결정할 때 과거의 경험은 중요한 준거 기준이 된다(Grunig, 1983).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정보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지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디어나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정보 추구의 채널이므로 더 적극적인 정보 추구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지진 경험이 정보 회피의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McDonald et al., 2015). 재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사람들은 공포 등의 감정을 심하게 경험한다. 확장 병행 과정

모델(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EPPM)에 따르면, 공포감은 심한데 공포의 원인이 되는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심리적 방어 기제로서 공포의 원인이 되는 메시지나 정보를 피한다(Paek & Lee, 2013; Witte, 1992). 이 모형을 지진 경험에 적용하면,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정보 불충분성을 인식하지만, 공포의 원인인 지진에 대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여기고 지진에 대한 정보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 방향의 예측도 가능하다. 지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진 같은 재해는 자신들이 살아 있는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즉, 시간적 거리를 매우 멀게 느껴), 정보 불충분성을 인지하더라도 정보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지진이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추후 지진에 대비한 정보 추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진의 경험 유무에 따라 정보 추구(혹은 회피) 행동에 대한 정보 불충분성, 정보 수집 능력과 시간적 거리의 영향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부족하기에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 4>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4: 정보 불충분성, 정보 수집 능력, 시간적 거리 및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정보 추구(연구문제 4a) 및 정보 회피(연구문제 4b)에 미치는 영향은 지진의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 방법

연구 대상과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포항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20일 후인 2017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성인 538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 참여자는 지진 경험자를 확보하기 위해 2차에 걸쳐 모집되었다. 1차적으로, 국내 리서치 회사에서 보유한 전국 단위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거주 지역 선별 과정을 거쳐 경상북도 거주자의 경우 지진 발생 지역인 경주 혹은 포항 거주자만을 설문 참여시켰다. 2차적으로는 포항 지역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응답자를 모집했으며, 이들은 88명으로 전체 연구 참여자의 16.4%이다.

응답자 중 274명(50.9%)이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8세였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경주 지역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2명(9.7%), 포항 지역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72명(32.0%)이었다. 자신이 경주 지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29명(42.6%)이었고, 포항 지진 경험자는 257명(47.8%)이었다. 설문 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변수 측정

본 연구에서 주요 예측 변수는 정보 불충분성, 정보 수집 능력 및 시간적 거리이며 종속 변수는 정보 추구 및 정보 회피이다. 또한 지진 경험의 유무에 따라 변수들의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Categories	<i>N</i>	%	Variable	Categories	<i>N</i>	%
Sex	Male	264	49.1	Age (years)	10~19	15	2.79
	Female	274	50.9		20~29	157	29.18
Marital status	Not married	240	44.6		30~39	127	23.61
	Married	285	53.0		40~49	128	23.79
	Divorced or widowed	13	2.4		50~59	78	14.50
Children (except "not married" participants)	Yes	268	89.9		60~69	31	5.76
	No	30	10.1		70~79	2	0.37
Monthly income (million won)	< 100	40	7.4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completion	5
	100~200	58	10.8	High school completion		66	12.3
	200~300	89	16.5	Enrolled in college or university		90	16.7
	300~400	89	16.5	College(2~3yrs) completion		82	15.2
	400~500	99	18.4	Bachelor's degree		248	46.1
	500~600	67	12.5	Postgraduate degree		47	8.7
	> 600	96	17.8	Residence		Seoul	50
Religion	Protestant	165	30.7		Busan	46	8.6
	Catholic	41	7.6		Daegu	44	8.2
	Buddhist	77	14.3		Incheon	43	8.0
	Others	7	1.3		Gwangju	43	8.0
Earthquake experience	in Pohang(self)	257	47.8		Daejeon	43	8.0
	in Pohang(family)	195	36.2		Ulsan	45	8.4
	in Kyungju(self)	229	42.6		Kyungju	52	9.7
	in Kyungju(family)	197	36.6		Pohang	172	32.0

연구 참여자들의 지진 경험 유무를 측정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아래에 특별히 기술되지 않은 한 모두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했으며, 다문항으로 구성된 경우 평균화했다.

정보 불충분성은 현재 보유 지식의 정도와 위험

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수준의 차이로서 (Kahlor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지진에 대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지식 보유 수준과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보 임계치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기입하게

한 후, 정보 임계치 점수에서 지식 보유 점수를 뺀 값으로 정보 불충분성을 구하였다.

정보 수집 능력은 그리핀 등(Griffin et al., 2008)을 참고하여 다음의 세 문항으로 측정했다.

1) 지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2) 지진에 대해 진실과 거짓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3) 지진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alpha = .79$).

시간적 거리는 존스 등(Jones et al., 2017)이 사용한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후 다음의 세 문항으로 측정했다. 1) 지진은 지금 바로,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역코딩). 2) 지진의 위험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역코딩). 3) 지진은 현시대보다는 다음 시대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측정값이 높을수록 시간적 거리가 먼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구한 결과, 세 번째 항목은 다른 항목과 상관관계가 낮아 제외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항목만을 사용했다(inter-item correlation = .69).

정보 추구하고 정보 회피는 기존의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변형했다(Huh & Kim, 2015). 정보 추구는 다음의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나는 지진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한다. 2) 나는 지진과 관련된 정보를 더 찾아볼 것이다. 3) 나는 지진 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더 알아볼 것이다(α

= .91). 정보 회피 역시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나는 지진과 관련된 정보를 피한다. 2) 나는 지진에 대해서는 더 알고 싶지 않다. 3) 나는 지진과 관련된 정보는 무시한다($\alpha = .94$).

지진 경험은 국내에서 일어난 대규모 지진인 2016년도의 경주 지진과 2017년도 포항 지진에 대해 개인 혹은 가족이 경험했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귀하는 포항 혹은 인근 피해 지역에 계셨습니까?”의 질문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했다. 총 네 문항의 질문, 즉 경주 지진의 경우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으로, 귀하 대신 “귀하의 가족”으로 대체된 질문에 대해 한 번이라도 “예”라고 대답한 경우 지진 경험자로 분류되었다.

통제변수. 본 연구는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 가운데 정보 불충분성, 정보 수집 능력이 정보 추구하고 정보 회피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시간적 거리의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것이 주요 연구 목적으로,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의 변수 가운데 정보 불충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즉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정치적 성향, 지진 경험 빈도¹⁾ 등의 개인 특성 변수와 위험에 대한 판단(risk judgment), 감정적 반응과 정보의 주관적 규범은 통제 변수로 처리하였다. 정치적 성향은 “당신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1 = 매우

1) 지진 위험 지역에 사는지의 여부, 즉 거주지는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의 변인이나 시간적 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는 지진 경험 빈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지진 경험이 좀 더 직접적인 영향 변수라는 점에서 거주지보다는 지진 경험 빈도를 고려하였다.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key variables

	Total <i>M(SD)</i>	Earthquake experiencers <i>M(SD)</i>	Earthquake non-experiencers <i>M(SD)</i>
Risk judgment	25.46 (12.62)	31.14 (11.83)	17.81 (9.13)
Affective response	5.54 (1.06)	5.75 (1.07)	5.26 (0.98)
Informational subjective norm	4.77 (1.35)	4.98 (1.39)	4.49 (1.23)
Information insufficiency	23.42 (24.17)	21.58 (24.54)	25.90 (23.47)
Perceive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4.27 (1.00)	4.35 (1.02)	4.16 (0.98)
Temporal distance	2.50 (0.99)	2.30 (0.97)	2.78 (0.96)
Information seeking	5.13 (1.08)	5.31 (1.07)	4.89 (1.04)
Information avoidance	2.63 (1.43)	2.45 (1.44)	2.87 (1.38)

보수적이다, 5 = 매우 진보적이다). 지진 경험 빈도는 위에서 열거한 경주와 포항에서의 개인 혹은 가족의 지진 경험을 묻는 4문항의 질문에 대한 예(1점), 아니오(0점)의 답변을 합산해 산출하였다. 위험에 대한 판단, 감정적 반응 및 정보의 주관적 규범은 기존의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의 연구들(e.g., Griffin et al., 2008; Huh & Kim, 2015)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였다. 위험에 대한 판단은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곱한 값으로 산출하였다. 발생 가능성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귀하가 지진의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단일 문항으로, 심각성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귀하가

지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1 = 매우 낮다, 7 = 매우 높다). 감정적 반응은 지진에 대해 느끼는 다음의 감정들이 느껴지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1) 두렵다, 2) 공포스럽다, 3) 걱정스럽다, 4) 겁이 난다, 5) 불안하다($\alpha = .96$). 정보의 주관적 규범은 “나와 가까운 지인들은 내가 지진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다”와 “내 가족은 내가 지진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inter-item correlation = .92).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Table 2>와 같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 추구 혹은 정보 회피를 종속 변수로 조절된 위계적 회귀분석(modera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먼저 위협정보 탐색처리 모형에서 제한하는 개인 특성(예, 연령, 성별, 정치적 성향, 지진 경험 빈도 등) 및 위협에 대한 판단, 감정적 반응과 정보의 주관적 규범을 통제하기 위해 이들 변수를 1단계에 투입했다. 본 연구의 예측 변수인 정보 불충분성, 정보 수집 능력과 시간적 거리는 2단계, 각 예측 변수로 구성된 상호작용 변수는 3단계에 투입되었다. 상호작용 변수는 정보 불충분성 × 정보 수집 능력, 정보 불충분성 × 시간적 거리, 정보 수집 능력 × 시간적 거리로 구성되었다. 다중 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세 개의 예측 변수를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했으며, 상호작용항 역시 평균 중심화된 값을 곱하여 구성했다. 범주 변수로 측정된 성별은 여성은 0, 남성은 1의 더미 변수를 사용했다. 정보 추구 및 정보 회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정보 추구를 종속 변수로 사용한 회귀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진 경험 빈도를 포함하는 개인 특성 및 위협에 대한 판단, 감정적 반응, 정보의 주관적 규범을 통제한 상태(1단계)에서, 정보 불충분성, 정보 수집 능력, 시간적 거리가 정보 추구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2단계), 정보 불충분성이 높을수록($\beta = .08, p < .05$),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고 인지할수록($\beta = .17, p < .001$),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beta = -.17,$

$p < .001$) 정보 추구가 높았다. 3단계에서 변수들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수집 능력($\beta = .02, p = .62$), 정보 불충분성과 시간적 거리($\beta = .01, p = .6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시간적 거리는 정보 수집 능력과 상호작용하여 정보 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10, p < .01$).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정(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Figure 1-a>와 같다. 시간적 거리 하위 집단에 비해 시간적 거리 상위 집단의 경우, 즉 지진이 먼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 집단에서는 정보 수집 능력이 정보 추구에 미치는 영향이 저하되었다(시간적 거리 하위 집단, $b = .34, p < .001$; 시간적 거리 상위 집단, $b = .11, p < .05$).

요약하면, 정보 추구에 대한 정보 불충분성의 주효과(연구가설 1a), 정보 수집 능력의 주효과(연구가설 2a)는 지지되었으며,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 불충분성의 상호작용 효과(연구가설 3a)는 기각되었다. 시간적 거리는 정보 추구에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연구문제 1a). 즉, 시간적 거리를 가깝게 인식할수록 정보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정보 추구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2a). 정보 추구에 대한 시간적 거리와 정보 불충분성의 상호작용 효과(연구문제 3a)는 관찰되지 않았다.

정보 회피를 종속 변수로 사용한 회귀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제 변수를 1단계로 투입한 상

Table 3. Regression results for information seeking and information avoidance (Total sample, $n = 538$)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avoidance		
	1st	2nd	3rd	1st	2nd	3rd
Sex	-.03	-.04	-.04	-.04	-.03	-.04
Age	.09*	.09*	.09*	.01	.00	.01
Education	.00	.01	.01	.00	.00	-.01
Monthly income	-.04	-.03	-.04	.00	.00	-.01
Political orientation	.04	.02	.02	.02	.02	.02
Number of earthquake experiences	.02	.01	.02	-.14**	-.14**	-.12*
Risk judgment	.17***	.13**	.13**	.06	.11	.11
Affective response	.32***	.26***	.25***	-.20***	-.11*	-.12*
Informational subjective norm	.30***	.25***	.25***	-.01	.01	.00
Information insufficiency (a)		.08*	.08*		-.08	-.08
Perceive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b)		.17***	.17***		.00	.00
Temporal distance (c)		-.17***	-.17***		.24***	.24***
(a) * (b)			.02			.05
(a) * (c)			.01			.01
(b) * (c)			.10**			.12**
R^2	.401***	.450***	.459***	.057***	.104***	.117***
R^2 change	.401***	.049***	.009**	.057***	.047***	.013

note. The dummy variable for sex was coded such that Female = 0 and Male = 1; Data are presented as standardized β ; * $p < .05$. ** $p < .01$. *** $p < .001$.

태에서, 정보 불충분성, 정보 수집 능력, 시간적 거리가 정보 회피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2단계), 정보 불충분성($\beta = -.08, p = .09$)과 정보 수집 능력($\beta = -.001, p = .98$)은 정보 회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적 거리는 정보 회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24, p < .001$). 시간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보 회피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3단계),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수집 능력($\beta = .05, p = .24$), 정보 불충분성과 시간적 거리($\beta = .01, p = .9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적 거리와 정보 수집 능력은 정보 회피에 대해 긍정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냈다($\beta = .12, p < .01$).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단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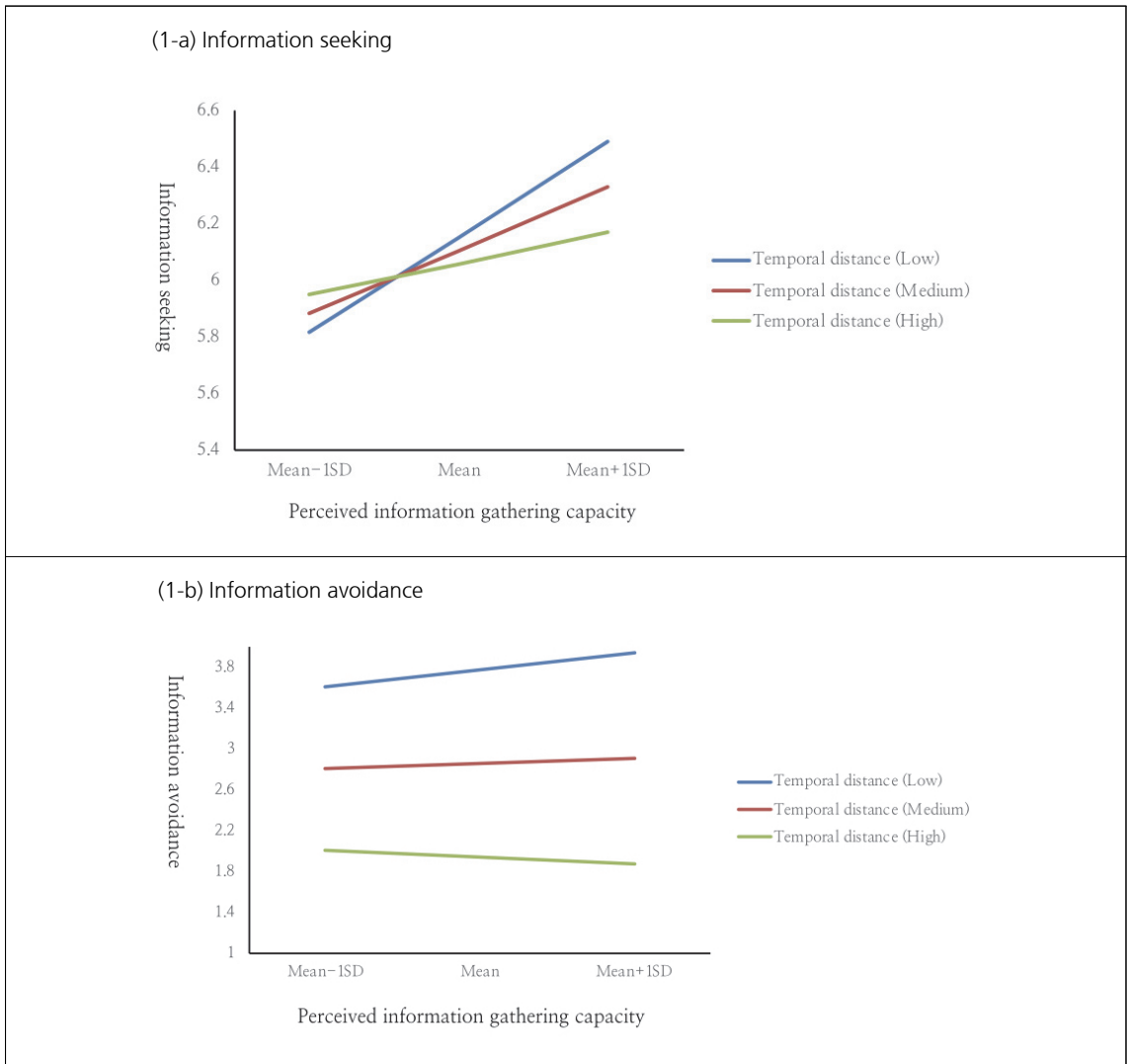


Figure 1. Interaction effects between perceive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and temporal distance on information seeking and information avoidance

을기 검정(simple slope analysis)의 결과는 <Figure 1-b>와 같다. 시간적 거리 상위 집단, 즉 지진이 먼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정보 수집 능력이 정보 회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b = -.07, p = .37$). 그러나 지진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 집단, 즉 시간적 거리 하위 집단에서는 정보 수집 능력이 클수록 정보를 더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b = .17, p < .05$).

요약하면, 정보 회피에 대한 정보 불충분성의 주 효과(연구가설 1b), 정보 수집 능력의 주효과(연구가설 2b) 및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 불충분성의 상호작용 효과(연구가설 3b)는 기각되었다. 시간적 거리는 정보 회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연구문제 1b). 즉, 시간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 회피의 관계에 대한 시간적 거리의 조절 효과(연구

문제 2b)가 관찰되었다.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정보 수집 능력이 정보 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회피에 대한 시간적 거리와 정보 불충분성의 상호작용 효과(연구문제 3b)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문제 4〉는 정보 불충분성, 정보 수집 능력, 시간적 거리 및 변수간의 상호작용이 정보 추구(연구문제 4a) 및 정보 회피(연구문제 4b)에 영향을 미칠 때, 지진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Table 4. Regression results for information seeking (earthquake experiencers vs. earthquake non-experiencers)

	earthquake experiencers (<i>n</i> = 309)			earthquake non-experiencers (<i>n</i> = 229)		
	1st	2nd	3rd	1st	2nd	3rd
Sex	-.04	-.07	-.08	-.01	.02	.01
Age	.11*	.11*	.11*	.05	.04	.03
Education	.02	.04	.03	-.03	-.01	-.01
Monthly income	-.03	-.03	-.04	-.07	-.04	-.05
Political orientation	.02	-.01	-.02	.07	.05	.03
Risk judgment	.22***	.19***	.19***	.06	.03	.03
Affective response	.34***	.29***	.28***	.26***	.19**	.18**
Informational subjective norm	.26***	.21***	.22***	.37***	.33***	.32***
Information insufficiency(a)		.01	.02		.17**	.18**
Perceive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b)		.17***	.18***		.17**	.15*
Temporal distance(c)		-.14**	-.13**		-.21**	-.18**
(a) * (b)			-.01			.04
(a) * (c)			.04			-.07
(b) * (c)			.07			.17**
<i>R</i> ²	.443***	.486***	.491***	.305***	.388***	.426***
<i>R</i> ² change	.443***	.043***	.005	.305***	.083***	.037**

note. The dummy variable for sex was coded such that Female = 0 and Male = 1; Data are presented as standardized β ; * $p < .05$. ** $p < .01$. *** $p < .001$.

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지진 경험 유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위에 기술한 방법대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1 단계의 통제 변수 가운데 지진 경험 빈도는 배제하였다.

분석 결과, 지진 경험 유무에 따라 정보 추구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지진 경험 집단의 경우 정보 불충분성은 정보 추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반면($\beta = .01$,

$p = .85$), 지진 비경험 집단의 경우 정보 불충분성이 높아질수록 정보 추구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beta = .17, p < .01$). 정보 수집 능력은 지진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보 추구에 영향을 미쳤다(지진 경험 집단 $\beta = .17, p < .001$, 지진 비경험 집단 $\beta = .17, p < .01$). 시간적 거리 역시 지진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모두에서 정보 추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Table 5. Regression results for information avoidance (earthquake experiencers vs. earthquake non-experiencers)

	earthquake experiencers (n = 309)			earthquake non-experiencers (n = 229)		
	1st	2nd	3rd	1st	2nd	3rd
Sex	-.05	-.05	-.06	.03	.01	.01
Age	-.02	-.03	-.01	.02	.01	.02
Education	-.01	-.01	-.02	-.03	-.05	-.06
Monthly income	-.02	.00	-.02	.10	.05	.05
Political orientation	.03	.03	.02	.02	.04	.04
Risk judgment	-.12	-.08	-.08	.32***	.35***	.37***
Affective response	-.14	-.10	-.12	-.22**	-.09	-.10
Informational subjective norm	.01	.02	.02	-.07	-.06	-.05
Information insufficiency(a)		.01	.02		-.17*	-.18**
Perceive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b)		.02	.04		-.04	-.05
Temporal distance(c)		.15*	.15*		.31***	.31***
(a) * (b)			.11			-.03
(a) * (c)			.01			.09
(b) * (c)			.15**			.10
R ²	.053*	.070*	.097**	.103**	.216***	.230***
R ² change	.053*	.017	.027*	.103**	.113***	.014

note. The dummy variable for sex was coded such that Female = 0 and Male = 1; Data are presented as standardized β ; * $p < .05$. ** $p < .01$. *** $p < .001$.

쳤다(지진 경험 집단 $\beta = -.14, p < .01$, 지진 비경험 집단 $\beta = -.21, p < .01$). 즉, 시간적 거리가 멀수록 정보를 덜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진 경험 집단에서는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지진 비경험 집단에서는 정보 수집 능력과 시간적 거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beta = .17, p < .01$). <Table 4>는 지진 경험 유무에 따라 정보 추구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정보 회피 역시 지진 경험 유무에 따라 변수 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정보 회피에 대한 정보 불충분성의 영향이 지진 경험 집단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beta = .01, p = .92$), 지진 비경험 집단에서는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인지할수록 정보를 덜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7, p < .05$). 지진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정보 수집 능력은 정보 회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지진 경험 집단 $\beta = .02, p = .70$, 지진 비경험 집단 $\beta = -.04, p = .52$). 반면, 지진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시간적 거리를 멀게 느낄수록 정보를 더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지진 경험 집단 $\beta = .15, p < .05$, 지진 비경험 집단 $\beta = .31, p < .001$). 지진 경험 집단의 경우 정보 습득 능력과 시간적 거리가 상호작용해 정보 회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beta = .15, p < .01$) 다른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지진 비경험 집단에서는 변수들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5>는 지진 경험 유무에 따라 정보 회피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결론

이 연구는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을 바탕으로 지진과 관련한 정보 탐색에 미치는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수집 능력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지진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나누어 변수들의 영향을 비교하였다. 또한 지진 발생에 대한 시간적 거리를 변수로 추가하고,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수집 능력이 정보 추구 또는 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시간적 거리가 조절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수집 능력은 정보 추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정보 회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지진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관찰한 결과, 지진 비경험 집단에서는 정보 불충분성이 높을수록 정보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정보를 덜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지진 경험 집단에서는 정보 불충분성이 정보 추구 및 회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정보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보를 덜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정보 수집 능력이 정보 추구 및 정보 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지진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관찰한 결과, 시간적 거리와 정보 수집 능력의 정보 추구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지진 비경험 집단에서만 관찰되었으며, 정보 회피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지진 경험 집단에서만 관찰되었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에 따르면, 정보 불충분성은 정보 추구(혹은 정보 회피)의 중요한 예측 요

인이며(Griffin et al., 1999), 메타 분석(Yang et al., 2014a)에서도 정보 불충분성은 위험정보 탐색 처리 모형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보고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정보 불충분성은 정보 추구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정보 회피에는 영향이 없었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은 정보 회피와 정보 추구를 독립적인 행동으로 간주했지만, 두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 요인을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 역시 정보 추구만을 종속 변수로 다룰 뿐 정보 회피에 대해서는 간과했다(e.g., Yang et al., 2011). 본 연구 결과는 정보 추구하고 정보 회피는 독립적인 행동으로, 정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정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Kahlor et al., 2006).

한편, 정보 불충분성은 지진 비경험자에서만 정보 추구 및 정보 회피의 유효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에서는 정보 추구를 미디어를 통해 습관적 혹은 일상적으로 정보를 얻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보를 추구하고 획득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본 연구가 포함 지진 직후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진 경험자들에게 지진 정보의 추구는 오히려 일상의 행동이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이 제시하는 대로, 본 연구에서도 정보 수집 능력은 지진 정보의 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iffin et al., 1999). 이러한 결과는 지진 경험 유무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정보 수집 능력은 위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서 정보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

는 능력을 포함한다(Griffin et al., 1999).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 습득 능력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해석수준 이론(Trope & Liberman, 2010)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시간적 거리에 따라 사람들의 정보 추구 혹은 정보 회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지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시간적 거리는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수집 능력에 비해 정보 추구 및 정보 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 이는 지진과 같이 발생 빈도가 낮아 경험에 의한 사람들의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재난 등에 대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보 추구 및 회피에 대해 정보 수집 능력과 시간적 거리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시간적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사람에 비해 시간적 거리가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 정보 수집 능력이 정보 추구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는 시간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해석, 즉 '어떻게'에 집중한다는 해석수준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Trope & Liberman, 2010). 따라서 본 연구를 확장하여 시간적 거리 지각에 맞추어 메시지를 다르게 재단하고(예: 메시지의 추상성 혹은 구체성에 차이를 둠) 정보 추구 행동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본다면 지진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시지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거리를 가깝게 인식하고 정보 수집 능력이 클수록 정보 회피 경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경험 유무에 따라 연구 참여

자들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정보 회피에 대한 시간적 거리와 정보 수집 능력의 상호작용 효과는 지진을 경험한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지진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일종의 정보로 여기고, 지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해 자신들의 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지진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추가적인 정보가 없어도 지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설문 조사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밝히지는 못한다. 따라서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와의 관계는 상관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귀분석 경로가 정보 수집 능력은 정보 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진 발생 직후 정보를 많이 찾아본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 수집 능력이 높다고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종속 변수였던 정보 추구 및 정보 회피는 설문 시점에서의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 및 미래에 발생할 행동의 의도를 측정한 것으로 참여자들의 응답에 의존하였다. 참여자들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측정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적절한 재난 대비 행동을 위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Tekeli-Yesil et al., 2010) 아래 정보 탐색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 탐색 행동이 실제 재난 대비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재난 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및 실무적 기여를 한다. 첫째,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재난 위험인 지진 위험의 맥락에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을 적용하고, 해석수준 이론의 시간적 거리 개념을 이론적으로 통합해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을 확장했다. 본 연구는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에 포함된 정보 불충분성 외에 시간적 거리도 정보 탐색에 매우 중요한 선행 요인임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그동안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이 주로 적용된 건강 위험이나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이라는 특수한 주제에 한해서만 나타나는 것인지, 혹은 다양한 주제나 맥락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진과 같은 드물게 나타나는 자연재해에 대해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실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적어도 자신들의 지진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여기면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에서 정보 불충분성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지식수준과 현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수준의 차이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진은 익숙하지 않은 재해로, 이들은 지진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수준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Yang et al., 2014a). 지진 발생에 대비해 필요한 지식수준에 대

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그에 준하는 지식들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식이 불충분한 경우 정보를 추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람들이 직접 혹은 가까운 가족이 지진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에도 시간적 거리를 좁혀 줌으로써 정보 추구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진이라는 위험이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지진 발생에 대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시간적 거리를 줄이기 위한 메시지와 함께 정보 습득 능력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준다면 정보 추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진 경험자에서는 시간적 거리가 가깝고 정보 습득 능력

이 있다고 인식할 때 오히려 정보 회피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지진 커뮤니케이션은 지진 경험자와 비 경험자를 세분화해 타겟에 따라 메시지를 다르게 디자인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보 회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동기에 대한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과 관련한 연구들은 정보 추구에 주로 초점을 둔 반면, 정보 회피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지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지진이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경우 정보를 회피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지진은 먼 미래에나 일어날 위험인데,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정보 과부하에서 비롯되는 것인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1.
- Chandran, S., & Menon, G. (2004). When a day means more than a year: Effects of temporal framing on judgments of health risk.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1, 375-389.
- Fiedler, K., Semin, G. R., Finkenauer, C., & Berkel, I. (1995). Actor-observer bias in close relationships: The role of self-knowledge and self-related langua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525-538.
- Griffin, R. J., Dunwoody, S., & Neuwirth, K. (1999). Proposed model of the relationship of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to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behaviors. *Environmental Research*, 80, S230-S245.
- Griffin, R. J., Yang, Z., ter Huurne, E., Boerner, F., Ortiz, S., & Dunwoody, S. (2008). After the flood: Anger, attribution, and the seeking of information. *Science Communication*, 29, 285-315.
- Griffioen, A. M., van Beek, J., Lindhout, S. N., & Handgraaf, M. J. J. (2016). Distance makes the mind grow broader: An overview of psychological distance studies in the environmental and health domains. *Applied Studies in Agribusiness and Commerce*. 10(2-3), 33-46.
- Grunig, J. E. (1983). Communication behaviors and attitudes of environmental publics: Two studies. *Journalism Monographs*, 81, 1-47.
- Ho, S. S., Detenber, B. H., Rosenthal, S., & Lee, E. W. J. (2014). Seeking information about climate change: Effects of media use in an extended PRISM. *Science Communication*, 36, 270-295.
- Huh, S., & Kim, Y. (2015). A comparativ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RISP in the context of risk types. Focusing on typhoon and hydrofluoric acid spill risk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70, 246-276.
- Jones, C., Hine, D. W., & Marks, A. D. G. (2017). The future is now: Reducing psychological distance to increase public engagement with climate change. *Risk Analysis*, 37, 331-341.
- Kahlor L. A., Dunwoody, S., Griffin, R. J., & Neuwirth, K. (2006). Seeking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impersonal risk. *Science Communication*, 28, 163-194.
- Kahlor, L. A., Dunwoody, S., Griffin, R. J., Neuwirth, K., & Giese, J. (2003). Studying heuristic-systematic processing of risk communication. *Risk Analysis*, 23, 355-368.
- Kang, B.-Y., & Kwon, S.-H. (2018). A study of the effects of cancer-related news frames on cognitive attitude, emotional attitude, and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In application of construal level theory.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2(6), 5-59.
- Kim, C. W. (2017). The effects of geographical distance, involvement, emotion to earthquake on risk perception. *Crisisonomy*, 13(5), 59-73.
- Kim, J. H., Kim, H. Y., & Boo, S. H. (2012). Communication through social media focus on prosocial behavior : The effect of message framing and social distance towards media.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3(1), 183-205.
- Kim, N.-Y. (January 13, 2019). "Earthquake strikes" occurred 115 times in the Korean peninsula last year. *Kookmin Ilbo*. 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985216&code=61121611&sid1=soc>
- Kim, Y., Lee, H, Lee, H., & Kim, H. (2017).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about particulate matter: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hina attribution, health symptom experience, perceived information capacity, and relevant channel belief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5(2), 5-44.
- Kim, Y., Lee, H., Kim, H., & Moon, H. (2018). Exploring message strategies for encouraging coping behaviors against particulate matter: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distance

- and the mediating effect of anxiet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92, 7-44.
- Lee, S. J. (2018). The role of construal level in message effects research: A review and future directions. *Communication Theory*, Published online December 12, 2018. <https://doi.org/10.1093/ct/qty030>
- McDonald, R. I., Chai, H. Y., & Newell, B. R. (2015). Personal experience and the 'psychological distance' of climate change: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44, 109-118.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Actions during an earthquake. Retrieved from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5&entId=60454
- Paek, H.-J., & Lee, H. (2013). *Message, audience and media strategies in health commun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 Park, H. (2014). Communication message strategy to promote disease prevention behavior: The effects of temporal distance, social distance and gain-loss frame in the cervical cance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8, 344-377.
- Rose, K. M., Toman, E., & Olsen, C. S. (2017). Public use of information about smoke emissions: Application of the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 model. *Canadian Journal of Forest Research*, 47, 1527-1537.
- Seo, M. (2016). Effects of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on MERS preventive behaviors and moderating roles of SNS use during 2015 MERS outbreak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78, 116-140.
- Siegrist, M., & Gutscher, H. (2008). Natural hazards and motivation for mitigation behavior: People cannot predict the affect evoked by a severe flood. *Risk Analysis*, 28, 771-778.
- Tekeli-Yesil, S., Dedeoglu, N., Braun-Fahrlaender, C., & Tanner, M. (2010). Factors motivating individuals to take precautionary action for an expected earthquake in Istanbul. *Risk Analysis*, 30, 1181-1195.
- ter Huurne, E. F. J., Griffin, R. J., & Gutteling, J. M. (2009). Risk information seeking among U.S. and Dutch residents. An application of the model of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Science Communication*, 31, 215-237.
- Trope, Y., & Liberman, N. (2010). Construal-level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117, 440-463.
- Witte K. (1992). Putting the fear back into fear appeals: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Communication Monographs*, 59(4), 329-349.
- Yang, Z. J., Aloe, A. M., & Feeley, T. H. (2014a).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A meta-analysis. *Journal of Communication*, 64, 20-41.
- Yang, Z. J., & Kahlor, L. (2012). What, me worry? The role of affect in information seeking and avoidance. *Science Communication*, 35, 189-212.
- Yang, Z. J., Kahlor, L. A., & Li, H. (2013). A United States-China comparison of risk information-seeking intentions. *Communication Research*, 41, 935-860.
- Yang, Z. J., McComas, K. A., Gay, G., Leonard, J. P., Dannenberg, A. J., & Dillon, H. (2011). Information seeking related to clinical trial enrollment. *Communication Research*, 38, 856-882
- Yang, Z. J. Rickard, L. N., Harrison, T. M., & Seo, M. (2014b). Applying the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to examine support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y. *Science Communication*, 36, 296-324.

최초 투고일 2019년 02월 07일
 논문 심사일 2019년 03월 18일
 논문 수정일 2019년 04월 01일
 게재 확정일 2019년 04월 05일

Effects of Information Insufficiency, Perceive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and Temporal Distance on People's Information Seeking and Avoidance about Earthquake

Hyegyu Lee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and Economics, Handong Global University*

Hye-Jin Paek

Professor, Departmen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Objectives

Based on the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RISP) and the construal level theory (CL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information insufficiency, perceive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and temporal distance on people's information seeking and avoidance about an earthquake. It also examined differences of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ose who did, and did not experience an earthquake.

Methods

Online survey data were collected among 538 adults (including 309 people who or whose family members experienced an earthquake) nationwide. A series of modera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as performed to test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Results

First, information insufficiency and perceive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were positively related to information seeking, but not related to information avoidance. Second, information insufficiency was a significant predictor for information seeking and avoidance, among those who did not experience an earthquake, but not among those who experienced an earthquake. Third, as temporal distance increased, people engaged in less information seeking and more information avoidance. Last, the effects of perceived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on information seeking and avoidance were stronger when temporal distance was close, compared to when it was distant.

*First Author: hglee@handong.edu

** Corresponding Author: 55 Hanyangdaehak-ro, Sangnok-gu, Ansan, Gyeonggi-do, South Korea, 426-791, 82-31-400-5441, hpaek@hanyang.ac.kr.

Conclusions

These findings provide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integrating and applying RISP and CLT to earthquake context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arget-specific message strategy for earthquake preparedness.

KEYWORDS temporal distance, RISP,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avoidance, earthquake